

# 귀농인의 영농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최윤지 · 신호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 Factors Influencing Urban to Rural Migration for Farming

Yoon-Ji Choi · Hyo-Yeon Shi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 Abstract

For the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urban to rural migration for farming. This study analyzed 217 urban to rural migrant farmers.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influence of the main variables on the agricultural challenges of the urban to rural migrant farmers were observed as the relationship of the level of financial preparations, the motivations of urban to rural migration, the agricultural income, the annual of urban to rural migration, the size of agricultural, gender, and age. This study result show that urban to rural migrant farmers' agricultural challenges is influenced by almost economical factors. Therefore, for the successful agricultural activities of the urban to rural migrant farmers show significant impact to need on the composite effort of all such as the individual, the family, the rural society, local autonomous entity, the government.

**Key words:** urban to rural migrant farmers, agricultural challenges

## 1. 서 론

최근 한국사회는 도시의 높은 주택 가격, 고용불안정과 같은 압축요인과 더불어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거주지 선택의 제약 완화,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농촌의 흡입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다(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 심재현, 2015).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부터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도시민의 농촌으로의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14년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귀촌한 가구는 총 44,586호로 2010년의 4,067호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15). 급격히 증가한 귀농·귀촌 인구는 단순히 농촌 사회의 인구 증가에 대한 기여만이 아니라 고령화된 농촌사

회에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등 여러 이점이 있다. 또한 젊은 귀농·귀촌 인구의 농촌사회로의 이주는 농촌사회 활력화의 주요 동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편리한 도시의 삶을 버리고 사회적 이민이라 불리는 귀농·귀촌을 통해 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하는 인구의 증가는 농촌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농촌사회갈등 조장, 경영규모화의 촉진을 억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으며(고상환 & 김동현, 2011), Fielding(1974)에 따르면 지속적인 인구이동은 이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이 일반화될 때 가능하며 만일 정착에 실패하

주요어: 귀농인, 영농 어려움

\* 본 논문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09983)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2015년도 한국농촌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신호연) 전화: 063-238-2648 e-mail: hyoryeon2@korea.kr

는 사례가 급증할 경우 인구가동 현상이 중단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귀농·귀촌 관련 연구에서는 귀농인의 성공적 정착의 애로사항으로 귀농인의 영농활동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을 보고하면서 귀농인들의 정착 어려움이나 도시로의 재이주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공식·비공식 통계에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2010-2012년에 전북지역으로 이주한 4,411세대의 정착실태를 시범 조사한 결과 도시로 되돌아간 세대가 같은 기간 귀농·귀촌한 세대의 8.3%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세전북신문, 2014) 그 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귀농인들의 영농활동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귀농 실패나 도시로의 재이주와 같은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귀농인의 영농현황이나 영농 어려움 현황, 영농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관한 체계화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귀농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들의 영농활동 실패나 영농활동 어려움 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행된 귀농 연구에서는 경영규모나 재배품목, 주요 영농 어려움과 같은 단편적인 영농 정보만이 귀농 연구의 배경변인으로 활용되었다. 즉, 기존의 귀농관련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개념, 동기, 유형 분류나 귀농·귀촌 적응, 정착, 성과에 관한 연구,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및 정책과제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을 뿐 귀농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귀농인의 영농활동과 영농 어려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귀농인의 영농활동 실태 및 영농 어려움은 어떠한지, 영농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구명해보고, 귀농인들이 영농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촌 사회에 잘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고찰

### 2.1. 귀농인의 영농활동

귀농인의 영농활동은 영농자금, 영농규모, 재배품목, 영농소득 등 지극히 제한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먼저, 영농자금의 경우 강대구(2006)의 연구에 따르면 귀농인은 영농활동 및 귀농생활을 위해 초기에 농장에 3,340만원, 주택에 1,483만원, 기타 436만원으로 평균 5,259만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규모의 경우 마상진(2012)의 연구에서 귀농 초

심자의 영농규모는 0.1-1ha이하의 비율이 높았고, 경지규모는 2,501-5,000평 해당 비율이 높았으며, 김백수와 이정화(2013)의 연구에서 귀농인의 영농규모는 밭농사의 경우 약 5,590m<sup>2</sup>, 논농사는 약 13,213m<sup>2</sup>, 하우스는 약 2,803m<sup>2</sup>, 과수원은 약 8,417m<sup>2</sup>으로 나타났다. 재배품목 및 경작유형의 경우 강대구(2006)의 연구에서 귀농인은 귀농 초기 논벼 재배를 많이 하였으나 점차 과수나 특용작물, 채소, 화훼의 재배 비율이 증가하였고, 고성준(2007)의 연구에서 전라북도 귀농인은 논벼재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상진(2012)의 연구에서 귀농 초심자는 과수 재배 비율이 높았고, 김백수와 이정화(2013)의 연구에서 귀농인의 밭농사 비율이 가장 높고, 논농사, 과수원, 하우스, 축산, 기타가 그 뒤를 이었다. 영농소득은 강대구(2006)의 연구에서 귀농인의 농업소득 예상액은 1,000만원 -2,000만원 정도가 33.6%로 가장 많았고, 고성준(2007)의 연구에서는 귀농인의 예상 소득은 500만원 미만의 비율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마상진(2012) 연구에서 귀농인의 농업소득은 1,000-5,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 2.2. 귀농인의 영농 어려움

귀농인들이 보고한 영농 어려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영농기술 부족 문제의 경우 김형용(1998), 서규선과 변재면(2000), 김성수, 정지웅, 임형백, 고운미, 김정태와 이성(2004), 서만용과 구자인(2005), 차광주(2010)은 농사 및 농업경영 기술 습득의 어려움을, 강대구, 김정남, 김민수, 이웅과 변규식(2006), 고성준(2007)은 귀농초기 재배(사육)기술 어려움을, 고성준(2007)은 작목선택, 경영 및 판매기술, 기술조연자 확보 문제를 주요 어려움으로 보고하였다. Johnson, S. E., Bowlan, M., McGonigal, J., Ruhf, K., & Sheils, C.(2001)은 신규취농자의 경우 작물재배·가축 사육, 기계·설비 운전 및 관리, 농가 경영 어려움을, 최윤지(2010)는 귀농초기 재배기술 어려움을, 오수호(2013)는 영농기술 및 경험부족을 꼽았고, 마상진, 박대식, 박시현, 최윤지, 최용욱과 남기천(2014)은 영농 기술 습득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았고, 특히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 일수록 영농 기술 습득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정보 부족 문제의 경우 김형용(1998)과 차광주(2010)는 영농상담 기회 부족, 영농계획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미흡을 주요 영농 어려움으로 꼽았다.

영농자금 부족 문제의 경우 Gordon(2000)은 유럽의 젊은 농업인들은 높은 정착 비용의 어려움이 크고, Johnson 등

(2001)은 신규취농자는 운영자금, 신용, 현금흐름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서규선과 변재면(2000)은 귀농자가 가장 어려웠던 상황으로 영농자금 및 영농기반 부족을 꼽았고, 김성수 등(2004)과 조창완(2009), 차광주(2010)는 농사시설 및 영농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강대구 등(2006)은 귀농인은 귀농 초기에 운영자금에 따른 어려움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농기계(시설)자금에 따른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Reeve와 Stayner(2006)은 후주의 신규농업인들은 영농분야 신규 진입 시 자본 및 신용 접근 문제를 겪고, 고성준(2007)은 귀농인들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확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하였다. 최윤지(2010)는 어느 정도 정착한 이후 농장 확대 또는 작목 변경을 위한 운영자금 어려움이 크고, 오수호(2013)는 영농자금 조달을, 채상현(2013)은 귀농정착 성공자들은 영농기반 마련과 사업자금 조달을, 마상진 등(2014)은 여유자금 부족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았으며, 특히 농촌 출신자가 여유 자금 문제를 더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귀농중단사례를 연구한 김혜민(2015)의 연구에서도 높은 영농비에 따른 경제적 인 또한 영농의 어려움과 귀농중단의 요인으로 다루었다.

농지관련 문제의 경우 김형용(1998), Johnson 등(2001), 김성수 등(2004), 서만용과 구자인(2005), Reeve와 Stayner(2006), 고성준(2007), 장동현(2009)과 조창완(2009), 차광주(2010), 마상진 등(2014)의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장애요인으로 농지 구입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특히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 일수록 농지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 문제의 경우 Sell(1982)과 Poston과 Coleman(1983)의 연구에서는 귀농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입이 필요하며, 농업소득 확보를 귀농인의 주요 영농 어려움으로 보고하였다. 김성수 등(2004)과 장동현(2009), 조창완(2009), 차광주(2010)는 귀농 어려움으로 소득원 확보 문제를 보고하였고, Gordon(2000), 오수호(2013)는 귀농인이 영농생활 중 갖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낮은 소득 문제를 꼽았다.

노동력 부족 문제의 경우 Gordon(2000)은 노동력 부족의 간접 지표로 인구 부족을, Johnson 등(2001)은 신규취농자의 자원과 관련해서 노동력 관련 어려움을 보고하였고, 서규선과 변재면(2000)은 일손부족을, 강대구 등(2006)은 귀농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력 확보 문제의 어려움을 크게 지각하며, 고성준(2007)과 차광주(2010)도 노동력 확보 문제를 주요 영농 어려움으로 보고하였다.

판로 및 판로 문제의 경우 서규선과 변재면(2000)은 귀농자가 겪는 어려웠던 상황 중 하나가 생산물 판매곤란이라고 보

고하였고, 강대구 등(2006)은 귀농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품 판로, 판매기술 등의 어려움을 크게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고성준(2007)도 생산물 판로 문제를 주요 영농 어려움으로 제기하였으며, 차광주(2010)는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을 주요 영농 어려움으로 보고하였다.

기타 문제의 경우 Gordon(2000)은 유럽의 젊은 농업인들은 경영승계 및 이양, 여성 농업인의 진입, 농촌 인프라의 쇠퇴, 미혼자 증가 문제를 지적하였고, 고성준(2007)은 농업/농촌정책과 제반 환경의 변화 문제를, 차광주(2010)는 농지원부 마련을 주요 영농 어려움으로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된 영농 어려움으로는 영농기술 부족 문제, 영농정보 부족 문제, 영농자금 부족 문제, 농지관련 문제, 농업소득 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 판로 및 판매 문제, 기타 문제 등이 있으나, 연구자별로 개별적인 접근을 하고 있을 뿐 이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귀농인의 영농 어려움에 관한 내용을 통합·정리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3. 귀농인의 영농 어려움 영향요인

본 절에서는 귀농인의 영농 어려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결과가 부족하기에 영농 어려움 해소를 비롯한 영농 어려움의 대리변인으로 귀농만족도, 농촌생활만족도, 농촌사회 적응, 삶의 질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폭넓게 살펴보았다.

강대구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귀농인은 영농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사람들과 상담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공주, 윤순덕과 강경하(2006)의 연구에서는 영농준비로서 영농교육 도움수준이 높을수록, 농촌이주자금 수준이 높을수록 귀농인들의 농촌생활만족도가 향상된다고 보았다. 문승태와 김소라(2012)의 연구에서는 성별, 귀농유형별, 농촌생활기간에 따라서는 삶의 질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연령에 따른 삶의 질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질 인식이 높았고, 귀농유형별로는 U턴형의 삶의 질 인식이 가장 높고, J턴형, I턴형 순으로 삶의 질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농촌생활 기간별로는 농촌생활기간이 4-5년 정도인 귀농인의 삶의 질 인식이 농촌생활기간이 3년 이내, 6년 이상인 귀농인보다 삶의 질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촌 출신자와 일정 기간의 농촌생활기간이 삶의 질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한편 농촌생활의 어려움도 일정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김백수와 이정화(2013)의 결과에 따르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 수, 영농기간, 귀농유형, 이주 준비기간, 영농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족역할의 안정성, 가족과 영농활동간 관계, 이웃과 영농활동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박성복(2013)의 연구에 따르면 귀농준비도가 정주만족도 및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사교육을 자주 받을수록, 농사기술이나 관련정보를 자주 수집할수록, 농촌생활에 관련된 연수에 자주 참여할수록, 농업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을 자주 방문할수록, 마을 이웃과 친분을 쌓으려 노력할수록, 귀농전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할수록, 그리고 귀농자금을 충분히 확보할수록 정주만족도와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상현(2013)은 귀농 정착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자금 조달, 토지 및 거주주택 마련 등 물질 측면의 영농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장하였다. 최윤지, 한송희와 공민재(2015)의 연구에서는 영농준비의 양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귀농교육시간이 길수록 귀농인의 경영관리 능력, 재배기술 능력, 농기계조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상진, 박대식, 박시현, 최용욱, 남기천, 남승희와 최윤지(2015)의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시기가 최근일수록 농지구입과 영농기술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귀농인의 영농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귀농인 스스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귀농 전 교육을 받는 등 귀농준비를 충실히 하고, 마을주민이나 시·군이나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은 귀농인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해 지지해 주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귀농교육 및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귀농인의 영농 어려움 해소 및 농촌사회 정착을 돕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3. 연구방법

####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귀농인의 영농활동 실태 및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지자체 귀농인협의회와의 협조를 얻어 귀농인협의회에 등록된 귀농인 240명을 임의추출하여 2014년 11월 18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 및 우편조

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17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문항은 선행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1)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 (2)귀농 관련 특성에 관한 문항 (3)귀농인의 영농활동 관련 특성에 관한 문항 등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표 1>과 같다. 측정방법은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 측정하였다. 학력은 중졸 이하 1, 고졸 2, 대졸 3, 대학원 졸업 이상 4로 측정하였으나 분석시 고졸 이하 0, 대졸 이상 1로 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동거가족은 해당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중복 응답 하게 하였고, 동거가족 없음을 0, 있음을 1로 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귀농동기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측정문항을 구성한 뒤 중복응답 하게 하였고, 해당되는 동기가 없으면 0, 있으면 1로 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귀농 전 직업은 전문관리직 1, 사무직 2, 판매서비스직 3, 기술노무직 4, 주부 및 기타 5로 측정하였고, 귀농연차는 연속형변수로 측정하였다. 귀농유형은 U턴 1, I턴 2, E턴 3으로 측정하였으나 회귀분석시 가변수(Dummy Variable)화하여 분석하였다. 영농활동 준비 정도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11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준비가 잘 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농지소유 여부는 미소유를 0, 소유를 1로 측정하였고, 영농규모는 m<sup>2</sup>단위로 연속형변수로 측정하였다. 부모 영농 여부는 아니오 0, 예 1로 측정하였고, 영농조연자는 없음 0, 있음 1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업소득은 만원 단위의 연속형변수로 측정하였다.

<표 1> 조사문항

구분	세부내용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동거가족
귀농 관련 특성	귀농동기, 귀농 전 직업, 귀농연차, 귀농유형
영농활동 관련 특성	영농활동 준비 정도, 농지소유여부, 영농규모, 부모 영농 여부, 영농조연자 여부, 영농비용 조달방법, 연간 농업소득

#### 3.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귀농인의 영농활동 준비와 귀농인의 영농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하위요인 각각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고유값 1 이상

요인을 추출하였고, 베리맥스 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은 Hair, Black, Babin, Anderson과 Tatham(2006)가 제안한 .5이상을 적용하였고, 요인분석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과 KMO의 표본적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상관관계수 행렬이 영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을 경우 요인분석 모형을 사용할 수 없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수 행렬이 영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1% 수준에서 기각되었다. KMO 값은 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다른 변인에 의해 잘 설명되는가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 값이 작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인의 선정이 좋지 못함을 보여준다. KMO값은 0에서 1사이 값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0.9이상이면 아주 좋고, 0.7이상일 경우 요인분석에 적합하며, 0.5이하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하는데 본 연구의 KMO값은 .81과 .84로 해당 변인들이 요인분석에 적절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귀농 관련 특성, 귀농인의 영농활동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영농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기본가정의 충족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와 Durbin-Watson 통계량,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 4. 분석결과

### 4.1. 기초분석

#### 4.1.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동거가족 여부, 거주지역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별은 남성이 72.4%, 여성이 27.6%였고, 연령은 50대가 51.6%, 60대 이상이 27.6%, 40대 이하가 20.7%를 차지했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45.2%, 대졸 이상이 54.8%였고, 동거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8.0%,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2.0%를 차지했다<표 2>.

#### 4.1.2. 귀농 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귀농동기는 농촌 생활이 좋아서가 22.3%로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사례수	퍼센트	
성별	남성	157	72.4
	여성	60	27.6
연령	40대 이하	45	20.7
	50대	112	51.6
	60대 이상	60	27.6
학력	고졸 이하	98	45.2
	대졸 이상	119	54.8
동거가족 여부	없음	26	12.0
	있음	190	88.0

\* 결측값에 의해 전체 합계에 차이가 있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 후 여생을 위해서와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도 각각 20.9%, 19.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귀농 전 직업은 전문관리직이 3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판매서비스직 24.2%, 사무직 19.3%, 주부 및 기타 10.6%, 기술노무직 7.7%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연차는 3년 미만이 3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3년 이상 5년 미만 31.6%, 5년 이상 30.1%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유형은 I턴형이 6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U턴 25.8%, J턴 10.1% 순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귀농 관련 특성

구분	사례수	퍼센트	
귀농동기 (복수응답)	농업 전망이 밝아서	22	5.2
	영농 승계를 위해서	14	3.3
	사업실패, 실직으로	9	2.1
	취업을 못해서	6	1.4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81	19.2
	농촌 생활이 좋아서	94	22.3
	건강을 위해서	69	16.4
	퇴직 후 여생을 위해서	88	20.9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33	7.8
	기타	5	1.2
귀농 전 직업	전문관리직	79	38.2
	사무직	40	19.3
	판매서비스직	50	24.2
	기술노무직	16	7.7
	주부 및 기타	22	10.6
	3년 미만	74	38.3
귀농연차	3년 이상 5년 미만	61	31.6
	5년 이상	58	30.1
	본인 고향 농촌(U턴)	56	25.8
귀농유형	배우자 고향 농촌(J턴)	22	10.1
	타향 농촌(I턴)	139	64.1

\* 결측값에 의해 전체 합계에 차이가 있음.

4.1.3. 영농활동 관련 특성

4.1.3.1. 귀농인의 영농활동 준비 요인분석 결과

귀농인의 영농활동 준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관련 문항 11개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Hair 등(2006)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1개 문항이 최종 요인분석 모델에서 제외되었고, 최종 10개 문항으로 2개의 요인이 생성되었다. 두 요인은 총 분산의 62.3%를 설명했고, 요인부하량은 .5이상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절하며, 두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은 모두 0.6이상으로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였다.

요인1은 '영농 정보 및 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실습', '영농 정보 및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이수', '영농 정보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선도농가 방문', '영농 관련 조언을 위한 영농조언자 확보',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정보탐색',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록에 관한 정보탐색 및 행정적 준비' 등의 6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귀농 준비'로 명명하였고, 해당 요인은 전체 분산의 42.1%를 설명했다. 요인2는 '농지 임차, 매입을 위한 정보탐색 및 자금 준비', '주택 임차, 매입, 신축을 위한 정보탐색 및 자금 준비', '영농시설 임차, 매입, 신축을 위한 정보탐색 및 자금 준비' '정착 초기 생활비 준비' 등의 4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정 준비'로 명명하였고, 해당 요인은 전체 분산의 20.2%를 설명했다.

<표 4> 귀농인의 영농활동 준비 요인분석 결과

영농활동 준비 변인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설명력	Cronbach's $\alpha$	평균
요인1 : 귀농 준비		4.64	42.15	.87	2.68
영농 정보 및 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실습	.893				2.68
영농 정보 및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이수	.842				2.86
영농 정보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선도농가 방문	.804				2.71
영농 관련 조언을 위한 영농조언자 확보	.637				2.66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정보탐색	.573				2.35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록에 관한 정보탐색 및 행정적 준비	.564				2.80
요인2 : 재정 준비		2.22	20.19	.84	2.70
농지 임차, 매입을 위한 정보탐색 및 자금 준비	.831				2.77
주택 임차, 매입, 신축을 위한 정보탐색 및 자금 준비	.790				2.74
영농시설 임차, 매입, 신축을 위한 정보탐색 및 자금 준비	.721				2.64
정착 초기 생활비 준비	.620				2.66

4.1.3.2. 영농활동 관련 특성

귀농인의 영농활동 준비 정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구명된 하위요인 변인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살펴보고, 귀농 준비가 5점 만점에 2.68점, 재정 준비가 2.70점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소유 여부는 소유가 80.5%, 미소유가 19.5%였으며, 영농규모는 평균 12,247m<sup>2</sup>(약 3,700평)로 나타났다. 부모 영농 여부는 아니오가 50.7%, 예가 49.3%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영농조언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0.6%,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9.4%였으며, 연간 농업소득은 평균 1,648만원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귀농인의 영농활동 특성

구 분	사례수 또는 평균	퍼센트 또는 표준편차
영농활동 준비 정도	귀농 준비	2.68
	재정 준비	2.70
농지 소유 여부	미소유	42
	소유	173
영농규모(m <sup>2</sup> )		12,247.93
부모 영농 여부	아니오	110
	예	107
영농조언자 여부	없음	42
	있음	175
연간 농업소득(만원)		1,648.15
		2,054.74

4.1.4. 귀농인의 영농활동 어려움 요인분석 결과

귀농인의 영농 어려움을 구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된 영농활동 어려움에 관한 18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Hair 등(2006)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4개의 문항은 최종 요인분석 모델에서 제외되었고, 최종 14개 문항으로 5개의 요인이 생성되었다. 5개 요인은 총 분산의 66.9%를 설명했고, 각 요인부하량은 .5이상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절할 뿐만 아니라 5개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은 모두 .6이상으로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였다.

요인1은 '농산물의 낮은 판매 단가', '비료값 · 사료값 등으로 인한 높은 영농 비용', '높은 인건비', '농산물 판로 개척' 등의 4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농자금과 판로확보 어려움'으로 명명하였고, 해당 요인은 전체 분산의 35.6%를 설명했다. 요인2는 '소득 창출이 가능한 영농규모 확보', '소득 창출이 가능한 작목 선택', '농경지 확보', '지역 및 토양에 적합한

작목 선택'이라는 4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작목선택 및 농지확보 어려움'으로 명명하였고, 해당 요인은 전체 분산의 11.8%를 설명했다. 요인3은 '영농 자금 대출에 따른 높은 이자 비용', '영농 정책 자금 대출'이라는 2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출 어려움'으로 명명하였고, 해당 요인은 전체 분산의 7.5%를 설명했다. 요인4는 '부족한 영농 정보', '영농 조연자 확보'라는 2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농정보 부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보 부족 어려움'으로 명명하였고, 해당 요인은 전체 분산의 6.3%를 설명했다. 요인5는 '농기계/시설의 확보 및 임차', '기계 작업 및 수리기술 부족'이라는 2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농기계 확보 및 조작 어려움'으로 명명하였고, 해당 요인은 전체 분산의 5.8%를 설명했다.

〈표 6〉 귀농인의 영농 어려움 요인분석 결과

영농 어려움 변인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설명력	Cronbach's α	평균
<b>요인1 : 영농자금 및 판로확보 어려움</b>		<b>6.41</b>	<b>35.63</b>	<b>.78</b>	<b>3.52</b>
농산물의 낮은 판매 단가	.836				4.07
비료값, 사료값 등으로 인한 높은 영농 비용	.590				3.78
높은 인건비	.576				3.77
농산물 판로 개척	.533				3.65
<b>요인2 : 작목선택 및 농지확보 어려움</b>		<b>2.12</b>	<b>11.76</b>	<b>.81</b>	<b>3.25</b>
소득 창출이 가능한 영농규모 확보	.904				3.35
소득 창출이 가능한 작목 선택	.601				3.31
농경지 확보	.597				3.16
지역 및 토양에 적합한 작목 선택	.522				3.18
<b>요인3 : 대출 어려움</b>		<b>1.35</b>	<b>7.52</b>	<b>.84</b>	<b>3.41</b>
영농 자금 대출에 따른 높은 이자 비용	.846				3.43
영농 자금 대출	.772				3.40
<b>요인4 : 정보 부족 어려움</b>		<b>1.13</b>	<b>6.27</b>	<b>.85</b>	<b>2.99</b>
부족한 영농 정보	.799				3.12
영농 조연자 확보	.739				2.87
<b>요인5 : 농기계 확보 및 조작 어려움</b>		<b>1.04</b>	<b>5.76</b>	<b>.77</b>	<b>3.51</b>
농기계/시설 확보 및 임차	.915				3.35
기계 작업 및 수리기술 부족	.580				3.69

#### 4.2. 영농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영농 어려움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선형적 영향(linear effect)을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선행연구에서 영농 어려움을 대리하는 귀농만족도, 농촌생활만

족도, 삶의 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진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귀농특성 변인에 영농활동 관련 변인을 추가하여 독립변인으로 하고, 영농 어려움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종속변인은 요인분석을 통해 구명된 하위요인 변인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존재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 상관계수(r)가 절대값 기준 .00-.46 사이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분산팽창계수 또한 1.13-6.97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오차항의 독립성 검토를 위해 Durbin-Watson의 통계량을 계산하였으며 6개 회귀식 모두 D-W값이 1.97-2.29로 나타나 잔차 간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농자금 및 판로확보 어려움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11, p<.01),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27%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 가운데 영농자금 및 판로확보 어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퇴직 후 여생을 위해서'라는 귀농동기( $\beta = 0.43, p < .01$ ), 재정준비( $\beta = -0.20, p < .05$ ), '취업을 못해서'라는 귀농동기( $\beta = 0.19, p < .05$ ), 영농규모( $\beta = 0.15, p < .05$ )였으며, 나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퇴직 후 여생을 위해서'라는 귀농동기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재정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취업을 못해서'라는 귀농동기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영농규모가 클수록 영농자금 및 판로확보 어려움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작목선택 및 농지확보 어려움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06, p<.01),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26%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 가운데 작목선택 및 농지확보 어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재정준비( $\beta = -0.28, p < .01$ ), 귀농연차( $\beta = 0.15, p < .05$ )였으며, 나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재정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귀농연차가 낮을수록 작목선택 및 농지확보 어려움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출 어려움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86, p<.001),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33%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 가운데 대출 어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농촌생활이 좋아서'라는 귀농동기( $\beta = 0.37, p < .05$ ),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라는 귀농동기( $\beta = 0.34, p < .05$ ),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감'이라는 귀농동기( $\beta = 0.34, p < .05$ ), '퇴직 후 여생을 위해서'라는 귀농동기( $\beta = 0.33, p < .05$ ), '기타' 귀농동기( $\beta = 0.27, p < .01$ ), 재정준비( $\beta = -0.22, p < .01$ ), 성

(표 7) 귀농인의 영농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독립변인	영농 어려움 변인	영농자금 및 판로확보 어려움		작목선택 및 농지확보 어려움		대출 어려움		정보 부족 어려움		농기계 확보 및 조작 어려움		전체 영농 어려움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성별(남자=0, 여자=1)	-0.12	-0.08	0.00	0.00	-0.54	<b>-0.23**</b>	-0.10	-0.05	0.05	0.02	-0.12	-0.09
	연령(세)	0.00	-0.01	0.01	0.06	-0.03	<b>-0.23**</b>	0.01	0.09	0.02	<b>0.19*</b>	0.00	0.02
	학력(고졸이하=0, 대졸이상=1)	-0.12	-0.08	-0.04	-0.03	0.02	0.01	0.03	0.02	0.29	0.15	0.00	0.00
	동거가족없음=0, 있음=1)	0.16	0.07	0.02	0.01	0.41	0.13	0.20	0.07	0.05	0.02	0.14	0.08
귀농 동기	농업전망이 밝아서 (없음=0, 있음=1)	0.56	0.24	0.17	0.06	0.65	0.20	-0.45	-0.16	-0.23	-0.08	0.20	0.11
	영농승계를 위해서 (없음=0, 있음=1)	0.49	0.16	-0.11	-0.03	0.37	0.09	-0.15	-0.04	-0.92	<b>-0.23*</b>	0.00	0.00
	사업실패, 실직으로 (없음=0, 있음=1)	0.21	0.06	-0.12	-0.03	-0.17	-0.03	-0.41	-0.09	-1.09	<b>-0.23*</b>	-0.22	-0.07
	취업을 못해서 (없음=0, 있음=1)	0.81	<b>0.19*</b>	0.57	0.12	0.33	0.05	-0.59	-0.11	0.23	0.04	0.39	0.11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없음=0, 있음=1)	0.13	0.08	0.05	0.03	0.75	<b>0.34*</b>	-0.32	-0.17	-0.45	-0.23	0.05	0.04
	농촌생활이 좋아서 (없음=0, 있음=1)	0.34	0.23	0.28	0.17	0.80	<b>0.37*</b>	-0.40	-0.22	-0.32	-0.17	0.19	0.15
	건강을 위해서 (없음=0, 있음=1)	0.30	0.18	0.19	0.10	0.58	0.25	-0.33	-0.17	-0.40	-0.19	0.11	0.08
	퇴직 후 여생을 위해서 (없음=0, 있음=1)	0.64	<b>0.43*</b>	0.37	0.22	0.73	<b>0.33*</b>	-0.23	-0.12	-0.38	-0.20	0.31	0.25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감 (없음=0, 있음=1)	0.56	0.28	0.50	0.21	0.99	<b>0.34*</b>	-0.07	-0.03	-0.24	-0.09	0.40	0.24
	기타 (없음=0, 있음=1)	0.47	0.09	0.51	0.09	1.99	<b>0.27**</b>	-0.42	-0.07	-0.19	-0.03	0.47	0.11
귀농 전 직업	직업(전문관리직=0, 사무직=1)	-0.14	-0.07	-0.16	-0.08	-0.20	-0.07	-0.09	-0.04	-0.06	-0.02	-0.14	-0.09
	직업(전문관리직=0, 판매서비스직=1)	-0.25	-0.14	-0.04	-0.02	-0.06	-0.02	-0.08	-0.04	-0.30	-0.13	-0.15	-0.10
	직업(전문관리직=0, 기술노무직=1)	-0.08	-0.03	0.11	0.04	-0.13	-0.03	0.34	0.10	-0.11	-0.03	0.02	0.01
	직업(전문관리직=0, 주부 및 기타=1)	-0.12	-0.06	-0.14	-0.06	0.33	0.10	0.04	0.02	-0.12	-0.04	-0.05	-0.03
	귀농연차(년)	-0.01	-0.04	-0.04	<b>-0.15*</b>	0.02	0.07	-0.04	<b>-0.17*</b>	-0.01	-0.06	-0.02	-0.11
	귀농유형(U턴=0, J턴=1)	-0.19	-0.08	0.09	0.03	-0.10	-0.03	0.04	0.02	-0.05	-0.02	-0.04	-0.02
	귀농유형(U턴=0, I턴=1)	0.07	0.05	0.09	0.05	0.33	0.15	0.04	0.02	0.10	0.05	0.11	0.09
영농활동 준비	귀농준비	-0.08	-0.09	0.01	0.00	-0.09	-0.07	-0.13	-0.12	0.00	0.00	-0.05	-0.07
	재정준비	-0.21	<b>-0.20*</b>	-0.36	<b>-0.28**</b>	-0.35	<b>-0.22**</b>	-0.27	<b>-0.20*</b>	-0.17	-0.12	-0.28	<b>-0.31***</b>
	농지(미소유=0, 소유=1)	0.25	0.14	0.23	0.11	-0.23	-0.08	-0.06	-0.03	0.08	0.04	0.11	0.07
	영농규모(m <sup>2</sup> )	0.00	<b>0.15*</b>	0.00	0.00	0.00	0.08	0.00	-0.02	0.00	-0.05	0.00	0.06
	부모 영농 활동(아니오=0, 예=1)	-0.14	-0.09	-0.15	-0.09	-0.13	-0.06	-0.22	-0.12	0.23	0.12	-0.10	-0.08
	영농조언자(없음=0, 있음=1)	-0.11	-0.06	-0.15	-0.07	-0.14	-0.05	-0.22	-0.09	-0.26	-0.10	-0.16	-0.10
	농업소득(만원)	0.00	-0.15	0.00	<b>-0.19*</b>	0.00	-0.09	0.00	<b>-0.18*</b>	0.00	-0.11	0.00	<b>-0.21**</b>
	Intercept	3.95		3.67		4.76		4.58		3.63		4.04	
	R <sup>2</sup>	0.27		0.26		0.33		0.22		0.21		0.33	
	F-Value	<b>2.11**</b>		<b>2.05**</b>		<b>2.86***</b>		<b>1.67*</b>		1.52		<b>2.89***</b>	
	D-W	1.97		1.99		2.12		2.29		2.05		2.10	

\* p<.05, \*\* p<.01, \*\*\* p<.001

별( $\beta = -0.23, p < .01$ ), 연령( $\beta = -0.23, p < .01$ )이었으며, 나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농촌생활이 좋아서'라는 귀농동기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라는 귀농동기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감'이라는 귀농동기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퇴직 후 여생을 위해서'라는 귀농동기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기타' 귀농동기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재정준비가 안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 어려움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보부족 어려움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1.67, p<.05$ ),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22%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 가운데 정보부족 어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재정준비( $\beta = -0.31, p<.001$ )와 농업소득( $\beta = -0.21, p<.01$ )이었으며, 나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재정 준비가 부족할수록, 농업소득이 낮을수록 전체 영농어려움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5. 결 론

귀농을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한 후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여 농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의할 때 귀농인의 성공적 정착의 핵심은 영농활동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귀농인의 영농활동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귀농관련 연구에서는 귀농인의 영농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귀농실패나 도시로의 재이주와 같은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귀농에서의 핵심적인 활동인 영농활동이나 영농 어려움 현황, 영농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관한 체계화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귀농인의 영농활동 및 영농 어려움은 어떠한 영농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결과를 구명해보고, 이를 통해 귀농인이 영농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촌사회에 잘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인의 영농활동 준비는 2개 요인으로 요인분석 되었고, 귀농준비와 재정준비로 명명되었다. 귀농인의 영농 어려움은 5개 요인으로 요인분석 되었고, 영농자금과 판로확보 어려움, 작목선택 및 농지확보 어려움, 대출 어려움, 정보 부족 어려움, 농기계 확보 및 조작 어려움으로 명명되었다.

둘째, 귀농인의 영농활동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영농활동 준비는 귀농준비와 재정준비 모두 5점 만점에 2.68점과 2.70점을 차지해 준비 수준이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소유 비율은 약 80%를 상회하고, 영농규모는 약 12,247m<sup>2</su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과 농사를 짓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했고, 영농조연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으며, 연간 농업소득은 약 1,648만원이었다. 영농 어려움 가운데 영농자금 및 판로확보

어려움, 농기계 확보 및 조작 어려움, 대출 어려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농기술 교육에 있어 농기계 관련 교육 및 마케팅 교육의 양과 질의 보완이 필요하며, 보조금 형식의 귀농정책자금 지원을 지양하고, 대출 조건을 완화하되 미상환시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하여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셋째, 영농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인1 ‘영농자금 및 판로확보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퇴직 후 여생을 위해서’, ‘취업을 못해서’라는 귀농동기, 재정준비, 영농규모로 나타나 퇴직 후 여생을 위해서라는 귀농동기가 없는 귀농인보다 퇴직 후 여생을 위해서라는 귀농동기가 있는 귀농인이, 취업을 못해서라는 귀농동기가 없는 귀농인보다 취업을 못해서라는 귀농동기가 있는 귀농인이, 재정준비가 부족할수록, 영농규모가 클수록 영농자금 및 판로확보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목선택 및 농지확보 어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재정준비, 농업소득, 귀농연차로 나타나 재정준비가 부족할수록, 농업소득이 낮을수록, 귀농연차가 짧을수록 작목을 선택하고 농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출 어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농촌생활이 좋아서’,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감’, ‘퇴직 후 여생을 위해서’, ‘기타’ 귀농동기, 성별, 연령, 재정준비로 나타났다. 즉, 농촌생활이 좋아서,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감, 퇴직 후 여생을 위해서, 기타 동기가 없는 귀농인이 이들 동기가 있는 귀농인에 비해,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재정준비가 부족할수록 대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 부족 어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재정준비, 농업소득, 귀농연차로 재정준비가 부족할수록, 농업소득이 낮을수록, 귀농연차가 짧을수록 정보 부족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확보 및 기술 부족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전체 영농 어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재정준비와 농업소득으로 재정준비가 부족할수록, 농업소득이 낮을수록 전체 영농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이 여성보다 대출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에서 영농자금이나 대출 등에 관한 재무적 의사결정이나 실행을 남성이 주로 담당하고, 여성은 주로 가정 내 역할을 담당하는 성역할 차이에 근거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생애주기상 연령에 비례해 소득과 자산이 증가하고, 다년간의 사회생활 경험이 신용도 향상으로 이어져 연령이 대출 어려움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설문문항 내에 자산, 부채 등 개인 및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일반화해서 해석하는 데에 주의가 요구되며,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귀농인의 재무상태 변인과 이들 변인에 따른 영농 어려움의 차이와 영향 관계를 명확히 구명해야 하겠다.

셋째, 귀농동기에 따른 영농 어려움의 경우 해당 귀농동기가 없는 사람에 비해 귀농동기가 있는 사람이 영농 어려움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농동기나 목적이 확실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귀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에 대한 기대가 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보다 크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귀농연차는 작목선택 및 농지확보 어려움, 정보부족 어려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일수록 농지구입과 영농기술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마상진 등(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반면, 영농기간은 농촌사회 적응에 유의한 영향변인이 아니라는 김백수와 이정화(2013)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신규 귀농인이 농촌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불리 작목을 선택하거나 농지를 구매하기 보다는 마을 주민이나 마을 리더의 조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귀농직후 농지를 바로 구매하기보다 임대농을 2-3년 정도 영위하고 마을 실정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 농지 등을 구매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도시의 생활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마을일에 솔선수범하며 봉사한다면 마을주민들에게 보다 빨리 수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영농조합 및 작목반과 같은 영농조직 및 지역사회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재정준비는 농기계 확보 및 조작 어려움을 제외하고 영농자금과 판로확보 어려움, 작목선택 및 농지확보의 어려움, 대출 어려움, 정보부족 어려움, 전체 영농 어려움에 모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박성복(2013)과 최윤지 등(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고, 귀농정착 활성화를 위해 영농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채상현(2013)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한편 이주자금은 농촌사회 적응에 유의한 영향변인이 아니라는 김백수와 이정화(2013)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농업의 경우 영농비나 생활비는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반면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 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소득 발생과 자금 회전이 느릴 뿐만 아니라 귀농인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부족한 영농기술로 인해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다량 수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귀농인의 상당수가 생활비나 영농비 마련의 어려움으로 농촌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도시로 재이탈해 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귀농인의 재정준비는 농촌생활의 안정적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예비 귀농인의 경우 귀농의사결정에 있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토지, 시설, 주거관련 자금과 더불어 아니라 최소 2~3년 정도의 생활비와 여유자금을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귀농관련 교육기관에서는 재정준비의 필요성과 더불어 지역별 적합 품목, 품목별 부부단위 적정 영농규모, 영농규모에 따른 필요자금 산정 등에 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안내해야 할 것이며, 정부차원에서는 소수에게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정책자금 지원을 지양하고 귀농 초기 2~3년 정도 영농기술 습득과 소득마련의 토대가 되는 선도농가 실습이나 농가 인턴제와 같은 소득화 사업을 보다 확대보급하여 재정준비가 부족한 귀농 농가의 농촌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농업소득은 작목선택 및 농지확보 어려움, 정보부족 어려움, 전체 영농 어려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귀농인의 영농 어려움 감소를 위해서는 농업소득 증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귀농 농가 스스로 철저한 영농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 또 농가는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직거래, SNS, 블로그 등의 다양한 유통과 판매망을 활용함으로써 6차 산업으로 진출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마을 차원에서는 귀농인이 기존 주민들과 함께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판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귀농인의 소득 안정 및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소득화 작물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농가경영비 감소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 귀농인은 217명으로 표본의 크기에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 전국단위의 귀농인 단체, 혹은 전국 농업기술센터, 농촌경제연구원 귀농·귀촌인 패널 등을 활용해 전국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규모 있는 연구를 진행해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독립변수의 경우 질적변수가 많아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설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표본의 크기를 확대하여 변수 특성에 따른 제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까지 귀농인에 관한 연구는 귀농실태, 귀농성과, 귀농정책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농업인이라는 귀농인의 특성을 반영한 영농활동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귀농인의 영농활동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영농활동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사례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과 제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귀농인의 영농활동 및 영농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련변수들의 영농 어려움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영농활동 변인의 중요성, 영농 어려움 하위 요인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하위 요인별로 차별적인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1. 강대구. (2006). 귀농자의 귀농유형별 영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2), 23-53.
2. 강대구, 김정남, 김민수, 이웅, & 변규식. (2006).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세종: 농림부.
3. 고상환, & 김동현. (2011). 제주지역 귀농, 귀촌 교육 참여자 특성 및 교육 만족도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8(4), 983-1010.
4. 고성준. (2007). 귀농자의 실태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구: 전라북도 귀농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김백수, & 이정화. (2013).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에 대한 생태체계적 분석. *농촌사회*, 23(2), 7-48.
6. 김성수, 정지용, 임형백, 고운미, 김정태, & 이성. (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농촌지도와 개발*, 11(1), 53-65.
7. 김형용. (1998). 귀농자의 실태와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4(1), 205-223.
8. 김혜민. (2015). 귀농, 귀촌 중단사례와 함의. *농정연구*, 52, 185-214.
9. 마상진, 박대식, 박시현, 최용욱, 남기천, 남승희, & 최윤지. (2015). 귀농·귀촌 시기별 귀농·귀촌 과정 및 경제·지역사회활동 실태 변화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7(2), 1-21.
10. 마상진, 박대식, 박시현, 최윤지, 최용욱, & 남기천.

- (2014).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1차년도(2014)*.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 마상진. (2012). *귀농·귀촌자의 영농실태와 교육요구 분석*.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 문승태, & 김소라. (2012). 귀농인들의 귀농 전과 후 지각된 삶의 질 수준의 비교 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40(3), 841-863.
13. 박공주, 윤순덕, & 강경하. (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 12(4), 63-76.
14. 박성복. (2013).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와 그 요인들 간의 통합적 영향관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253-277.
15. 새진북신문. (2014). *귀농 정착이 왜 힘든가*(2014. 2. 25).
16. 서규선, & 변재면. (2000).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농촌지도와 개발*, 7(1), 137-153.
17. 서만용, & 구자인. (2005). 귀농자의 농촌정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농어촌관광연구*, 12(2), 145-171.
18. 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 심재현. (2015).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 오수호. (2013). 귀농·귀촌가구의 이주·정착 특성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 장동현. (2009). 지방자치단체의 귀농 관련 자치법규의 비교 분석: 귀농의 조례 및 규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7(3), 19-32.
21. 조창완. (2009). *전남 귀농 활성화 방안*. 무안: 전남발전연구원.
22. 차광주. (2010). *현장에서 본 귀농 활성화 방안*. Paper presented at the 농업전망 2010 (녹색성장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 채상현. (2013). 귀농정착 현황 및 귀농정착 성공요인 분석: 귀농귀촌교육수료생 대상 영농정착실태조사 사례 중심으로. *한국 농·산업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43-60.
24. 최윤지, 한송희, & 공민재. (2015). 귀농 교육의 만족도, 성취도,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21(1), 51-61.
25. 최윤지. (2010). *귀농단계별 지원주체의 역할과 운영체계 구축*. 전주: 농촌진흥청.
26. 통계청. (2015). *2014년 귀농·귀촌인 통계*. 대전: 통계청.
27. Fielding, J. G. (1974). *Geography as social science*. New York, U.S.: Harper and Row Publishers.
28. Gordon, R. (2000). *The future of young farmers in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EU: European Parliament.
29.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h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6th ed). New Jersey, U.S.: Pearson Prentice Hall.

30. Johnson, S. E., Bowlan, M., McGonigal, J., Ruhf, K., & Sheils, C. (2001). *Listening to new farmers: Findings from new farmer focus groups*. Massachusetts, EU: New England Small Farm Institute.
31. Poston, D. L., & Coleman, M. T. (1983).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the non-metropolitan turnaround in U.S. counties: an alternative procedure. *Rural Sociology*, 48, 436-446.
32. Reeve, I., & Stayner, R. (2006). *Preparing entrants to farming: Scoping programs and strategies*. Canberra, Australia: Rural Indust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33. Sell, R. (1982). A research note on the demography of occupational relocations. *Social Forces*, 60, 859-865.

---

Received 18 May 2016; Revised 23 August 2016; Accepted 12 September 2016



Yoon-Ji Choi is a Researcher of Department of Rural Settlement Support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are rural aging and rural in-migration. Address: (55365)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veritas96@korea.kr  
phone) 82-63-238-2645



Hyo-Yeon Shin is a Researcher(post-doc.) of Department of Rural Settlement Support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are rural in-migration and rural consumer. Address: (55365)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hyoryeon2@korea.kr  
phone) 82-63-238-2654